

## ■ 2017년도 ACCELERATE Korea Award 2차심의 지원심의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ACCELERATE Korea Award 2차심의
- 회의일시 : 2017. 3. 8(수), 17:00- 19:00
- 회의장소 : 스카이프를 통해 유럽입자물리연구소와 공동심의 진행

Accelerate Korea Award 수상자 선정을 위해 1차 심사에서 선정된 6인의 후보 작가를 대상으로 2차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는 CERN의 아트 디렉터인 Monica Bello 와 물리학자인 Despina Hatzifotiadou, 그리고 우리 측은 1차 심사 위원 중에서 위촉된 카이스트의 원광연 교수와 내가 함께 참여했다. 두 시간에 걸친 스카이프 화상 회의를 통해 작가 하나하나의 포트폴리오를 리뷰하고 또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수상자 대상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우선 토론에 앞서 CERN으로부터 수상 기준과 조건을 파악하고, 작가가 제출한 모든 자료를 두 번 세 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포트폴리오에 링크로만 제시된 자료도 인터넷에서 찾아 리뷰를 하며 최대한 작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CERN이 제시한 주요 수상기준은 제시된 프로젝트의 혁신성과 예술성, 연구주제의 시간, 공간, 입자물리학과 관련성, CERN의 과학적 아이디어와 기술과의 관련성 및 흥미,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 등이었다. 모니카벨로는 또한 본 어워드가 단지 좋은 결과물만을 만드려는 것이 아니라, CERN의 커뮤니티 내에서의 상호 교류의 과정을 통해 작가가 그의 작품 세계에 있어 의미 있는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의 기준에 가장 근접하는 대상자를 찾기 위해 심사위원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양측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것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거듭 고심했고 논의했다.

먼저 6명의 작가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리뷰한 후에 논의의 대상을 안효주, 장철원, 조태복 세 명으로 좁히고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 세 작가들은 작품 포트폴리오가 잘 갖춰져 있었고, 레지던시 활동에 대한 계획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유망한 신진 작가들이었다. 이렇게 비슷한 조건의 대상자를 두고 우리가 선별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고민했던 바는 이들 작가들이 제안하는 프로젝트가 CERN의 정체성과 물리적 조건 내에서 얼마나 부합하는 것인지, 또 CERN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예상되는 작가의 성장이 얼마나 기대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다.

사물에 대한 섬세한 관찰과 수학적 사유를 통해 회화와 무빙이미지 작업을 하고 있는 장철원은 순환과 무한의 개념을 조형 언어로 풀어내고자하는 작가이다. 그는

양자물리와 현대수학에 관해 과학자들과의 교류에서 받은 영감을 토대로 이미지와 과학, 그리고 수학을 연결한 작업을 진행하고 또 책으로 그 과정을 기록하는 것을 제안했다. 심사위원들은 그가 제출한 작가노트와 제안서, 포트폴리오를 통해 판단하건데, 과학과 수학에 대한 그의 진정어린 관심과, 과학적 아이디어에 절대적으로 기대고 있는 그의 작품이 CERN과의 콜레보레이션 기회를 주는데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CERN에서의 레지던시가 그에게 작가로서 그의 과학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더 성숙한 조형언어를 발견하도록 하는데 다른 어떤 후보의 경우보다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최종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고민스러운 논의의 대상이었던 안효주와 조태복에게도 건승을 빌고 싶다. 심사 위원들 모두가 이들의 완성도 높은 작품 포트폴리오를 매우 좋아했고, 제안서를 두고 많은 고심을 했음을 밝힌다. 또 이들이 앞으로 한국의 예술 현장에서 과학과 예술 융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가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

ACCELERATE Korea Award는 CERN이 각 나라별로 단 한 차례만 제공하는 레지던스로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상이다. 그러나 접수된 제안서가 17건이었고, 그 중에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중견작가들의 참여는 더 저조했던 점, 또한 CERN이라는 고유한 환경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과학과 예술의 피상적 융합으로 프로젝트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최종 선정된 장철원이 CERN과의 협력으로 과학적 상상력을 조형언어로 풀어내는 작가로서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아르코와 CERN 또한 이러한 기회들을 통해 흥미로운 예술 과학 교류의 장을 계속해 펼쳐주길 희망한다.

## ■ 2017년도 ACCELERATE Korea Award 2차심의 지원심의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ACCELERATE Korea Award 2차심의
- 회의일시 : 2017. 3. 8(수), 17:00- 19:00
- 회의장소 : 스카이프를 통해 유럽입자물리연구소와 공동심의 진행

2인 (Monica Bello, Despina Hatzifotiadou)은 2시간 동안 Skype로 영상회의를 진행하였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총 6명의 작가를 대상으로 먼저 각 작가에 대해서 심사위원 각자 의견을 개진한 후, 자유토론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명으로 후보를 압축하고, 다시 3명을 대상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1명을 선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요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았다.

- 계획서 내용: 얼마나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작가 역량 및 발전 가능성
- 과학기술, 특히 현대물리에의 이해도
- CERN측의 고유연구와의 연계 가능성
- 본 프로그램과의 부합성 및 성공 가능성

각 후보자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핵심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1. 안효주 : 계획서가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독창적이나, CERN 고유의 활동 영역과는 무관한 내용을 제안하였음.
2. 유귀미 : 기존 작업 내용이 과학 데이터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과학 데이터의 피상적 형태를 작품의 소재로 삼았을 뿐, 과학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와 접근이 부재함.
3. 유신애 : 제안하는 암호기술에 관한 내용은 CERN 고유의 활동 범위의 밖에 있음.
4. 장철원: 수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독창적인 조형언어로 해석한 것은 바람직함. 다만, 여태까지의 작업은 비교적 고전적인 수학과 과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하여 현대물리와 현대수학 영역으로 지평을 넓힐 가능성이 있음.
5. 정가희: 작가의 역량이나 독창성은 매우 높히 평가함. 그러나 반물질(black matter)와 마인드를 연결하겠다는 의도는 meta-physics 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바, CERN보다는 다른 연구기관에 더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6. 조태복: 사운드 인스톨레이션은 독창적이고, CERN에서도 충분히 수용할 만한 영역임. 그러나 이런 류의 작업은 적지 않은 준비기간이 소요되며, 따라서 1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계획하는 만큼의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됨.

전체적으로, 6명 모두 작가로서의 역량은 출중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였다. 그러나 과학과 예술의 융합이라는 명제에 대해, 깊은 과학적 지식에 기반하지 않고 피상적인 관찰과 메타포에 의존하여 접근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 이 점은 향후 다양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나 공동연구 및 창작으로서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작가는 CERN에 파견 전에 포항공대 입자가속기 등, 국내 연구기관과의 사전 교류를 갖기를 권한다.